

# 만성간염

# 증상

## 만성간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 증상으로 만성간염 유형 구별은 불가능



서동진

〈울산의대 내과교수〉

환자의 일부에서만 급성 간염이나 황달을 앓았던 병력이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미하여 언제 발병하였는지 알기 힘든 수가 많다. 실제로 황달을 동반한 급성 B형 간염 환자는 대부분 회복되고 만성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주산기나 유아기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일반증상

만성 간염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양에 많은 자가면역성 만성 간염은 젊은 여성 등에 호발하지만 우리나라에 흔한 만성 B형 간염은 주로 20~30대의 남성들에게 발생한다. 또한 C형 만성 간염은 40대 후반의 장년층 남녀에 호발하는 경향이 있다.

만성 간염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다. 전혀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심한 간부전 상태가 되어 사망하는 사람까지 심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만성 간염 환자는 증상이 없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헌혈이나 직장 신체검사로 우연히 자기기도 모르게 간염에 걸려 있는 것을 알게되는 수가 많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결과가 나와 진찰과 정밀검사를 병원에서 한 후 비로소 만성 B형 간염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B형 간염의 항원 항체 검사가 보편화됨에 따라 무증상 만성

만성 활동성 간염이 진행하여 간경변증이 되면 체중감소, 전신 쇠약 허약감, 황달, 복수, 식도, 정맥류 출혈, 간성 혼수, 혈액 응고 장애 등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만성간염이 심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는 구역질, 식욕감퇴, 위상 복부 불쾌감, 허약감, 미열, 황달, 진한 소변, 검은 얼굴, 기미, 여드름 등이 있다.

성인이 되어 급성 B형 간염에 걸리면 대부분 완쾌되고 5% 정도가 만성화되지만 나이가 어려서 감염될수록 만성화률이 높아진다. 신생아 때에 모체로부터 수직감염을 받으면 90% 이상이 만성화되어 평생 바이러스 보유자로 남을 수 있고 소아기에 감염되면 30% 정도가 만성화된다.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더 만성화의 빈도가 높다. C형 간염에 걸리더라도 50~70%가 만성화한다.

만성간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이다. 암 또는 결핵 같은 소모성 질환도 없고 우울증같은 정신과적 원인도 없이 피로감이 지속될 때에는 일단 간의 이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가벼운 과로나 운동으로 곧잘 악화되기도 한다.

만성간염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양에 많은 자가면역성 만성간염은 젊은 여성등에 호발하지만 우리나라에 흔한 만성 B형 간염은 주로 20~30대의 남성들에게 발생한다. 또한 C형 만성간염은 40대 후반의 장년층 남녀에 호발하는 경향이 있다.

간염 환자가 많이 발견되고 그 연령도 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단 보균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정밀검사판하고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성 간염은 증상이 있는 경우라도 대개 심하지 않고 비특이적인 수가 많다. 수주 내지는 수개월에 걸쳐서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므로 언제 발병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증상으로 만성 간염의 유형을 감별할 수는 없다.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이다. 암 또는 결핵같은 소모성 질환도 없고 우울증같은 정신과적 원인도 없이 피로감이 지속될 때에는 일단 간의 이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만성 간염때의 피로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 편이며 경과에 따라 심한 정도의 차이가 있다. 가벼운 과로나 운동으로 곧잘 악화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심한 예들에서는 구역질이나 식욕감퇴로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 힘든 수도 있고 위상복부 불쾌감, 허약감 또는 미열이 생기는 수도 있다. 황달이 생길 수도 있고 소변색이 진해지기도 한다. 얼굴색이 검어지고 기미가 끼며 사춘기에도 없던 여드름이 얼굴이나 가슴에 나는 경우도 흔하다.

만성 간염 환자의 약 30%는 서서히 발병하지 않고 급성 간염처럼 급격히 발병한다. 실제로 과거에 급성 간염이라고 진단받았던 병력이 있는 환자들이 드물지 않다. 전형적인 급성 B형 간염은

3~4개월 내에 회복되고 바이러스가 소실된 후 항체가 생긴다. 그러나 만성간염은 6개월 이상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지속되고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으며 항체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급성 B형 간염 환자가 증상이나 간기능 검사만 좋아졌다고 완치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고 꼭 바이러스 항원이 소실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경과를 판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같이 B형 간염 보유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급성 간염 환자라도 바이러스 항원이 양성이라고 바로 급성 B형 간염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 만성적인 보균상태에서 바이러스가 갑자기 활성화되어 급성 간염과 같은 증상이나 간기능 검사의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전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였고 간기능 검사는 정상이었던 사람이 신체검사상 우연히 GPT치가 상승되어 있거나 급성 간염처럼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일단 만성 간염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B형 간염 보유자에게 다른 간염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B형 바이러스는 간염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라도 다른 간염이 증폭되어 발생할 수가 있다. 또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약물용 잘못 복용하여 약물성 간염이 급격히 오는 수도 있으므로 무절제한 투약은 금하여야 한다.

만성 간염 환자는 진찰소견상 뚜렷한 이상이 없는 수가 많다. 자각증상도 없이 GPT상승과 바이러스 항원양성 소견만이 전부인 경우도 흔하다. 대개 영양상태는 좋다. 얼굴이 검어지고 여드름이 나며 모세혈관의 확장이 나타난다. 간이 부어있고 비장도 붓는 수가 많다.

만성 활동성 간염이 진행하여 간경변증이 되면 체중감소라든지 전신쇠약증, 허약감 뿐만 아니라 황달이나 복수, 식도 정맥류 출혈, 간성 혼수 또는 혈액응고 장애와 같은 합병증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만성 간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의 외의 장기에 병변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가

한국인 40대의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높고 그 주된 사망원인이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 또는 간암 같은 만성 간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국인 만성 간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이고 다음이 C형 간염 바이러스이다.

성인이 되어 급성 B형 간염에 걸리면 대부분 완쾌되고 5% 정도가 만성화되지만 나이가 어려서 감염될수록 만성화률이 높아진다. 신생아 때에 모체로부터 수직감염을 받으면 90% 이상이 만성화되어 평생 바이러스 보유자로 남을 수 있고 소아기에 감염되면 30% 정도가 만성화된다.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더 만성화의 빈도가 높다. C형 간염은 B형보다도 더 만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성인이 급성 C형 간염에 걸리더라도 50~75%가 만성화한다.

만성 간염은 임상 경과나 발현양상, 진행상 및 결과가 매우 다양하다.

# 맨파오

精力·氣力 증강을 위한 秘方

- 中國皇室秘方 生藥 31種
- 鹿茸 廣狗腎 黑驢腎 當歸
- 人參 牧丹 皮海馬 杜仲 阿膠
- 桂皮 仙茅 菟絲子 補骨脂
- 淫羊藿 胡蘆巴 巴戟天 肉蓯蓉
- 鎖陽 川續斷 熟地黃 覆盆子
- 炮附子 枸杞子 玄參 黃耆 白朮
- 山茱萸 茯苓 麥門冬 牛膝 甘草



● 표준소매가격 : 40칸셀/30,000원, 120칸셀/80,000원  
● 문의처 : (02)464-0861, 약국부



# ‘맨파오’란 무엇인가?

‘맨파오’는 강장(強壯) 및 강정(強精)을 중점으로 한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복합처방 되어있는 광범위한 효능·효과의 자양강장제입니다.

수입·판매원  
한일약품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712동 656-408

제조원  
日本·田辺製藥株式会社  
日本·大阪

제약원  
中國天津市力生製藥廠  
中國天津市南開區黃河道491號

정신건강은 인간 삶의 기초입니다

# 빈우물

김나영

매순간 그는 제 행동 속에 흠뻑 몰두해 있다. 먹고 싶은 것을 보면 그는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 접시에서 눈을 땄 줄을 모른다. 그의 눈에 가득 찬 욕망은 치열하다 못해 벌써 음식 위로 튀어 올라가 앉는 것만 같다. 그가 무릎 위에 몸을 웅크릴 때도 제가 가진 애정이란 애정은 모두 다 철저히 쏟아가며 웅크린다. 행동에 빈틈이랴곤 찾아 볼래야 찾아볼 도리가 없다.

-장 그르니에 『섬』 '공양이 몰루' 중

창 밖으로 내다 보이는 겨울 하늘이 찬 공기에 잔뜩 긴장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구름 한 점 없는 질푸른 하늘로 떠 있다. 초겨울 눈처럼 지금의 저 햇살은 바람에 날리기만 할 뿐이지 쌓이지 않나 보다. 눈 밑까지 목도리를 감아 매고 종종 걸음을 치는 학생들을 보고 벌써 하교 시간인가 의아해서 반대편 벽에 붙은 일일달력을 본다. 새파란 날짜가 크게 박혀 있다. 토요일이다.

언제부터 옆에서 있었는지 이선생은 내 어깨를 툭치며 장난스레 웃는다. "한선생, 뭘 그렇게 생각해? 눈빛을 보니 심상찮은 옛사랑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옛사랑은 무슨."  
"시치미 떼기는. 왕년에 가슴 설레는 사랑 얘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어때? 오늘 거기? 쪽 한잔 들이키고 보따리를 좀 풀어 봐."

거기란 이선생과 나, 그리고 정선생이 가끔 이사장, 한이사, 정부장으로 둔갑하고 들르는 술집을 말한다. 분위기를 생뚱맞아도 서비스가 좋고, 노래 반주기도 시골벽적하니 흥을 잘 띄운다.

"글쎄..."  
잠깐 망설이는 내게  
"좀 전에 보니까 정선생도 오늘 한 잔 하고 싶다는 눈치던데?"

사실은, 정선생보다 이선생 자신이 더 마시고 싶어하는 뜻이 농후한 언질을 던진다. 늦은 밤 귀가길은 그림자처럼 키를 늘인 쓸쓸함 때문에 한기를 더욱 느끼게 된다. 오늘처럼 거나한 술자리에 있다가 돌아가는 길이면, 극렬치 않은 이러한 분위기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게 한다. 어둡고 찬 밤공기에 잘 스며드는 탄식처럼 낮게 새어나오는 노래가 이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없어서는 안될 특이한 정서를 만들어 냈다. 바람이 녹슨 철 대문을 흔들고, 성글게 쌓인 연탄재를 굴리면서 내게 가까와 지더니 결국 몸서리치는 내 모습을 보고서야 저만큼 내리막길로 꼬리를 감춘다. 목언저리가 섬뜩해서 보니 거기에 목도리를 두고 왔다.

교감과 늘 티격태격 이가 맞지 않는 문과 문턱처럼 부딪치는 이선생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교감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안주 삼아 씹으면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기분 전환을 하려고 우리를 불러 모았던 것이다.

"...사나이 목숨걸고 바친 순정 모질게도 밟아 놓고..."  
유들유들하게 불러대는 노래속에서 풀쩍 튀어나온 '순정'이란 단어. 오늘따라 그 단어가 술이 확 깡만큼 선명하게 다가서는 바람에 나도 모르는 새 잔 수가 늘었나 보다. 평소엔 무엇을 잊고 다니는 일이 없는데... 쓴 웃음이 가면처럼 어색하게 얼굴위에 얹힌다.

그 여자의 이름은 순정이었다. '갈대의 순정', '열 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처럼 유행가 가사에 심심찮게 나오는 순정(純情)이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십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이름을 생각하면 가슴 속으로 뜨거운 물이 흘리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그 느낌이 그리움이든, 미련이든, 죄책감이든 상관없지만 아직까지 날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신산스러운 감정임에 틀림없다.

순정은 내가 처음 발령받은 경기도 파주군에 있는 ○○종합고등학교에 다니던 근로장학생이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주간교 교무실에서 잡무를 보아 주고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학생. 그 여자를 학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어색함을 느꼈었다.

<다음호에 계속>

면역성 간염 때에는 전신에 자가면역질환이 합병되는 빈도가 많으나 우리나라에는 주로 만성 B형 간염이 많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만성 B형 간염 때에는 간염 바이러스의 면역 복합체가 침착한 결과 사구체 신염, 혈관염 또는 관절염같은 합병증이 올 수 있다. 사구체 신염이 그중 많은데 신증후군이나 만성 신부전 상태가 되어 신장내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만성 간염이 발견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 ■경과

만성 간염의 경과를 매우 다양하다. 특히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기인한 만성 간염은 오랜 기간 특별한 간질환의 이상증상이 없이 염증이 계속될 수 있다. 대부분 경과가 완만하고 심하지 않다. 성인이 되어 감염된 만성 B형 간염은 단지 15~20

지속된 후 e항원이 없어지고 e항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간염이 진행하지 않고 바이러스도 증식이 계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바이러스 보유자 상태로 남게 된다. 그러나 간염을 심하게 겪었던 예들에서는 e항체가 생기더라도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만성간염 경과 중 재발이 반복되면 증상이 심한 수가 많고 사망하기도 한다. 장기간 재발과 호전이 반복되는 것은 대개 중증 만성 간염 때에 많고 경과후 간경변증이나 간부전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만성 B형 간염의 경과에서 모두 e항원이 소실되고 염증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에 따라서는 간경변증이 되어 문맥압 항진증이나 간부전 상태로 진행한 후에야 e항원이 소실되고 간염의 활동성이 소멸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만성 간염의 치료는

## 간경변증 나이 많을수록 발병 잦아

% 만이 간경변증으로 진행한다. 더구나 간경변증은 5~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소아기때에 감염된 경우는 예후가 더 나빠서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의 진행이 흔하다. 소아 때에는 간기능 이상이나 증상도 별로 없다가 15~30세의 성인의 되면 활동성이 반복적으로 악화되어 약 40%에서 간경변증이 발생한다.

만성 B형 간염 때에는 e항원과 e항체를 검사해 보아야 한다. 만성 간염초기에는 e항원 양성으로서 이 시기는 바이러스의 증식이 많고 전염성도 높으며 간염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e항원 양성 상태가 수년간에서 수십년간

간경변증이나 심한 간손상이 초래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활동성 간염과 바이러스의 증식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한 간손상이 나타나기 전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미리 투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남자가 간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도는 정상인보다 30~100배 높다. 바이러스의 증식상태 즉 e항원 양성 상태가 오래 갈수록 예후는 좋지 않다. B형 간염 보유자에서 간경변증이 발생하는 빈도는 매년 1.5~2.5%라고 알려져 있다. 간경변증은 나이가 많을수록 생기는 빈도가 많다.

<만성간염편 끝>

# 맨파오

精力·氣力 증강을 위한 秘方

- 中國自製秘方生藥 31種
- 鹿茸·廣狗腎·黑龍腎·當歸
- 人參·牡丹皮·海馬·杜仲·阿膠
- 桂皮·仙茅·菟絲子·補骨脂
- 淫羊藿·胡蘆巴·巴戟天·肉蓯蓉
- 鎖陽·川續斷·熟地黃·覆盆子
- 炮附子·枸杞子·玄參·黃耆·白朮
- 山茱萸·茯苓·麥門冬·牛膝·甘草



표준소매가격: 40캡슐/30,000원, 120캡슐/80,000원  
문의처: (02)464-0861, 화솔부

맨파오는 이미 중국에서 男宝라는 이름으로 큰 호평을 받고있는 대표적인 자양강장제로 신(腎)·(精)·(氣)·(血)·(補)하는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배합되어 있으며 옛부터 중국황실에만 전해져 내려오는 비방(秘方)과 중국의학 및 동양의학사상에 근거를 둔 처방으로 중년기 이후 쇠약해지기 쉬운 기력 및 활력 증강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한다.



## ‘맨파오’란 무엇인가?

‘맨파오’는 강장(強壯) 및 강정(強精)을 중심으로한 동식물성 생약이 무려 31종이나 복합처방 되어있는 광범위한 효능·효과의 자양강장제입니다.

수입·판매원  
한일약품공업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712동 656-408  
대표이사: 김주원  
日本·田辺製藥株式会社  
日本·大阪  
及南廠  
中國天津市力生製藥廠  
中國天津市南開區黃河道491號